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면접(面試)을 통과(通過)할 수 있을까? (왕호응 씀)

이것은 2023년의 예(例)이다. 어떤 남자(男子)가 공공기관(公共機關) 면접을 점(占)쳤는데, 통과할 수 있을까?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을묘일(乙卯日) 을유시(乙酉時) (순공(旬空): 자축(子丑))에, 천지비(天地否)가 수지비(水地比)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乙卯日 乙酉時		八卦
天地否(乾金宮) 之 水地比(坤土宮)		
應 孫戊子 ^空 帳馬災乙花	玄 父壬戌 蓋天	才 應 伏 父壬戌 蓋天
父戊戌 蓋天	白 兄壬申 馬乙花劫	伏 兄壬申 馬乙花劫
兄戊申 馬乙花劫	蛇 官壬午 將害	才 伏 官壬午 將害
世 財乙卯 閏花將	勾 財乙卯 閏花將	世 伏 父甲辰 馬月花鞍
官乙巳 亡馬	朱 官乙巳 亡馬	伏 財甲寅 閏地亡
父乙未 花鞍蓋	青 父乙未 花鞍蓋	伏 孫甲子 ^空 帳馬災乙花
六合卦		
歸魂卦		卦身: 兄申
空亡: 子丑		世身: 四爻

관귀(官鬼)를 용신(用神)으로 삼고, 부모(父母)를 참고(參考)로 삼는다. 관귀가 양현(兩現)하니, 발동(發動)한 관귀 오화(午火)를 용신으로 삼는다. 월(月)이 극(剋)하지 않고 일(日)이 생(生)하니 왕상(旺相)하다. 세효(世爻)가 구진(勾陳)에 임(臨)하고 일에 치(值)하니, 당신의 마음 상태(狀態)가 관찮음을 주(主)한다.

그러나 응효(應爻)가 발동(發動)하여 술토(戌土)에 입묘(入墓)하고, 또 응효가 발동하여 세효를 합주(合住)하여 관귀를 생(生)하지 못하니, 기회(機會)를 남에게 빼앗김을 주하여, 비록 시험(試驗)은 잘 보았을지라도 나아가 더 심사(審査)할

때 문제가 있을까 두렵다.

후에 피드백하기를, 본인(本人)은 역전(逆轉)을 노리는 입장이었고, 본래(本來) 약간의 말더듬이 있었으며, 3년 동안 시험을 쳤으나 줄곧 직업(職業)이 없었다. 1등은 84점이었고, 본인은 80점을 받았으며, 면접은 통과하지 못했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面试能不能通过？（王虎应写）

这是2023年的例子。某男占事业单位面试，能不能通过？于癸卯年壬戌月乙卯日乙酉时（旬空：子丑），得天地否之水地比。

玄武	父母戌土○应	子孙子水
白虎	兄弟申金'	
螣蛇	官鬼午火○	兄弟申金
勾陈	妻财卯木"世	
朱雀	官鬼巳火"	
青龙	子孙子水	父母未土"

以官鬼为用神，父母做为参考。官鬼两现，以发动的官鬼午火为用神。月不克日生为旺相。世爻临勾陈青龙值日，主你心态不错。但应爻发动，入墓在戌土，又应爻发动合住世爻不能生官鬼，主机会被人抢走，虽然考的不错，但进一步审核怕有问题。后反馈，本人是攻擂的，本身有点口吃，考了三年，一直没有工作。第一名84分，本人考了80分，面试没有通过。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한 말씀(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느긋함을 알아야, 비로소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선대(先代)의 현인(賢人)들이 글자를 만든 것에는 통달(通達)한 삶의 지혜(智慧)가 숨어 있으니, “바쁠 망(忙)” 자(字)를 쪼개어 보면 바로 “마음 심(心)”에 “망할 망(亡)”, 즉 마음이 죽는다는 뜻이다.

온종일 걸음을 멈추지 않고 분주(奔走)히 달리기만 하며 몸과 마음을 과도(過度)하게 무리(無理)해서 쓰다 보면, 점차(漸次) 내면(內面)의 평화(平和)와 침착(沈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많은 경우(境遇), 우리는 진도(進度)를 쫓아가고 앞길로 달려가는 것에 집착(執着)하여 날들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며 걸음을 멈추지 못하지만, 도리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지속적(持續的)으로 자신(自身)의 정력(精力)을 소모(消耗)하게 된다.

진정(真正)한 삶이란 결코 끝없는 피로(疲勞)와 분주한 달음박질이 아니라, 긴장(緊張)과 이완(弛緩)이 적절(適切)히 조화(調和)를 이루는 침착(沈着)함이다. 휴식(休息)은 결코 세월(歲月)을 허송(虛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힘을 비축(備蓄)하는 것이며, 성인(成人)에게 가장 소중(所重)한 스스로를 치유(治癒)하는 방식(方式)이다. 몸과 마음은 마치 거문고 줄과 같아서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기 쉬우니, 적당(適當)히 늦추어야 비로소 부드럽고 귀에 한갓진 선율(旋律)을 연주(演奏)할 수 있다.

매사(每事)가 완벽(完美)해야 한다고 자신(自身)을 강박(強迫)할 필요(必要)가 없고, 매일(每日) 바쁘게 길을 재촉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템포(Tempo)를 늦추어 아침에 일어나 새벽빛을 조용히 기다리고, 저녁에는 저녁바람을 고요히 감상(感想)하며, 한가(閑暇)할 때 생각을 비우고 자신을 가라앉혀야 한다.

적절(適切)하게 여백(餘白)을 두고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며 본심(本心)과 정력을 지켜내라. 당황(唐惶)하지도 바쁘지도 않은 상태(狀態)가 바로 인생(人生)의 가장 좋은 모습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다. (왕호응의 웨이보 동영상)

懂得松弛，方能长久前行

老祖宗造字藏着通透的生活智慧，“忙”字拆开，便是心亡。

终日步履不停、疲于奔波，过度透支身心，慢慢就会弄丢内心的平和与从容。很多时候，我们执着于追赶进度、奔赴前路，把日子填得满满当当，不舍得停下脚步，却在无形之中持续消耗自己的精力。

真正的生活，从不是无休止的劳碌奔波，而是张弛有度的从容。休息从不是虚度时光，而是为生活蓄力，是成年人最珍贵的自愈方式。身心如同琴弦，绷得太紧易断裂，适度松弛，才能弹出温柔悦耳的旋律。

不必强迫自己事事圆满，不必日日匆忙赶路。偶尔放缓节奏，晨起静待晨光，傍晚静赏晚风，闲暇时放空思绪、沉淀自己。

适度留白，松弛度日，守住本心与精力。不慌不忙的状态，才是人生最好的模样，也让我们拥有长久前行的力量。 [王虎应的微博视频](#)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귀곡자(鬼谷子): 천하(天下)의 기국(棋局)

제39장 소진(蘇秦)의 마지막 날

소진은 제국(齊國)의 길거리에서 죽었다.

때는 기원전(公元前) 284년, 그는 이미 제나라의 객경(客卿)이었다. 그가 사실(事實)은 연국(燕國)의 간첩(間諜)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그가 마침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명(名)의 자객(刺客)들이 돌진(突進)해 나와 칼과 창을 일제(一齊)히 휘둘렀다.

그는 온몸에 상처(傷處)를 입은 채 피웅덩이 속에 쓰러졌다.

둘러싸서 구경하던 백성(百姓)들은 공포(恐怖)에 질려 사방(四方)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자객들도 도망(逃亡)쳤고, 오직 그 혼자만이 차가운 돌판 위에 누워 있게 되었다.

그에게는 아직 한 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잣빛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을 지었다.

그는 많은 일들을 떠올렸다.

어릴 적 낙양(洛陽)에서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무시(無視)당하던 나날이 생각났다. 처음으로 진국(秦國)에 갔을 때 위양(衛鞅)에게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당했던 굴욕(屈辱)이 생각났다. 연국에서 연소왕(燕昭王)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先生)의 큰 은혜(恩惠)를 과인(寡人)은 평생(平生)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던 그 순간(瞬間)이 생각났다. 장의(張儀)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실 때, 둘 다 취(醉)해서 탁자(卓子)에 엎드려 잠들었던 그날 밤이 생각났다.

그는 스승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

“이기고 지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重要)하냐?”

그가 웃었다.

스승님, 제자(弟子)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해왔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자신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여부(與否)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귀에 발걸음 소리가 한바탕 들려왔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소진! 소진!”

제왕(齊王)의 목소리였다.

그가 눈을 뜨자, 제왕의 허둥지둥하는 얼굴이 보였다.

“소진, 누가 한 짓인가? 누구야?”

그의 입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대왕(大王)..... 신(臣)에게 한 가지 방법(方法)이 있습니다..... 진범(眞犯)을 찾을 수 있는.....”

제왕은 멍해졌다.

소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대왕..... 그제 신을..... 연국의 간첩이라고 하시고..... 거열형(車裂刑)에 처(處)해 대중(大衆)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진범이..... 틀림없이..... 상(賞)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제왕은 넋을 잃었다. 소진이 그를 바라보는데, 눈빛이 점차 흐려졌다.

“대왕..... 신은..... 갑니다.....”

그의 손이 아래로 툭 늘어졌다.

제왕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후, 제나라에서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방(榜)을 붙였다. 소진은 연국의 간첩이며, 현재(現在) 조사(照査)를 마쳤기에 거열의 형벌(刑罰)에 처하고 사흘 동안 시체(屍體)를 내걸어 둔다는 내용(內容)이었다.

과연(果然), 누군가 상을 받으러 왔다.

제왕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신문(訊問)하니, 바로 소진을 찢어 죽인 진범(眞犯)들이었다.

“소진, 제왕이 중얼거렸다. “그대는 죽어서까지도 머리를 굴리는군.”

그는 명령(命令)을 내려, 그 자객들을 전부 처형(處刑)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진은 이미 볼 수 없었다.

第三十九章 苏秦的最后一日

苏秦死在齐国的街头。

那是公元前284年，他已经是齐国的客卿。没有人知道，他其实是燕国的间谍。

那一日，他正在街上走着，忽然冲出来几个刺客，刀剑齐下。

他倒在血泊中，浑身是伤。

围观的百姓惊恐地四散奔逃。刺客们也逃了，只留下他一个人躺在冰冷的石板上。

他还有一口气。

他望着灰蒙蒙的天空，忽然笑了。

他想起了很多事。

想起小时候在洛阳，家里穷得叮当响，被人看不起的日子。想起第一次去秦国，被卫鞅拒之门外的屈辱。想起在燕国，燕昭王跪在他面前说“先生大恩，寡人没齿难忘”的那一刻。想起和张仪最后一次喝酒，两人都喝醉了，趴在桌上睡着的那个夜晚。

他想起师父说过的那句话——

“输赢，真的那么重要吗？”

他笑了。

师父，学生终于明白了。

输赢不重要。

重要的是，你做过什么，你爱过谁，你有没有对不起自己的心。

他缓缓闭上眼睛。

耳边传来一阵脚步声。有人来了。

“苏秦！苏秦！”

是齐王的声音。

他睁开眼睛，看见齐王那张惊慌失措的脸。

“苏秦，是谁干的？是谁？”

他嘴角微微上扬。

“大王……臣有一个办法……能找到真凶……”

齐王愣住了。

苏秦用尽最后的力气，说：“大王……就说是……燕国的间谍……把臣……车裂示众……真凶……一定会……来领赏……”

齐王呆住了。

苏秦看着他，目光渐渐涣散。

“大王……臣……走了……”

他的手，垂了下去。

齐王跪在他身边，久久没有动。

几天后，齐国发布告示：苏秦是燕国间谍，现已查明，判处车裂之刑，暴尸三日。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果然，有人来领赏。
齐王抓住那些人，一审问，正是刺杀苏秦的真凶。
“苏秦，”齐王喃喃道，“你到死，都在算计。”
他下令，将那些刺客全部处死。
可苏秦，已经看不到了。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진양호(晉陽湖) 잉어가 용(龍)으로화(化)하다

진양호는 태원에서 가장 큰 천연(天然) 호수(湖水)로, 호숫물이 맑고 깨끗하며 안개와 물결이 아득하게 넓어서, 예로부터 잉어가 뜻을 세워 용으로 화하고 호숫물을 수호(守護)했다는 감동적(感動的)인 민간(民間) 전설(傳說)이 전(傳)해 내려오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먼 옛날에 진양호는 수역(水域)이 광활(廣闊)하여 호숫물이 주변(周邊)의 만(萬) 이랑이나 되는 비옥(肥沃)한 논밭을 적셔주었고, 연안(沿岸) 마을 백성(百姓)들이 편안히 살며 즐겁게 일하도록 비호(庇護)해 주었으니, 호숫물에 영기(靈氣)가 가득 차고 넘쳐 무수(無數)한 수중(水中) 생령(生靈)들을 길러냈다.

호수 속에 한 마리의 평범(平凡)한 작은 잉어가 있었는데, 사시사철 호수 속에 서식(棲息)하며 타고난 성품(性品)이 굳세고 선량(善良)했다. 잉어는 연안 백성들이 봄에 밭 갈고 가을에 거두며 호수에 의지(依支)해 살아가는 것을 목격(目擊)했고, 또한 홍수(洪水)와 가뭄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고난(苦難)도 보았기에, 마음속으로 남몰래 소원(所願)을 빌며 이 호숫물을 수호(守護)하고 한 지역(地域)의 백성들을 보살피고자 했다. 이로부터 작은 잉어는 밤낮으로 열심히 수련(修練)하며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차게 흐르는 호숫물 속에서 자신(自身)을 단련(鍛鍊)하였으니, 수 십 년(數十年)을 거치는 동안 단 한 번(番)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 당시(當時)에 태원에 연년(連年)이 큰 가뭄이 들어, 뜨거운 태양(太陽)이 이글거리고 풀과 나무가 시들었으며, 진양호의 물은 날로 갈수록 말라붙었고 연안의 논밭은 가뭄으로 갈라져 백성들은 곡식(穀食) 한 톨도 거두지 못한 채 집을 잃고 떠돌았다. 고통(痛苦)을 겪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수년(數年) 동안 수련한 작은 잉어는 차마 마음에 두고 보지 못해, 평생(平生)의 수행(修行)을 전부(全部) 소모(消耗)해가며 천지(天地)의 수기(水氣)를 끌어오고 사방(四方)의 비이슬을 모았다. 순식간(瞬息間)에 먹구름이 모여들고 단비가 내리 내리니, 말라붙었던 호숫물이 천천히 차올랐고 시들었던 풀과 나무가 다시 생기(生氣)를 얻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 후, 호숫물이 풍족(豐足)해지고 만물(萬物)이 다시 살아났으며, 이 선량한 잉어는 고난(苦難)을 다 겪어 공덕(功德)이 원만(圓滿)해지니, 한번에 경충 뛰어올라 용으로 화해 공중(空中)으로 날아올랐고, 진양호가 해마다 평안(平安)하도록 수호했다. 이로부터 천 년(千年) 동안 진양호는 큰 가뭄과 홍수를 겪는 일이 극(極)히 드물었으며, 시종(始終) 물결이 넘실거리며 만물을 윤택(潤澤)하게 기르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잉어가 용으로 화한 이야기는 여전(如前)히 태원 민간에서 대대(代代)로 전해 내려오며, 굳세게 선(善)을 향(向)하고 사심(私心) 없이 봉사(奉仕)하는 도시(都市)의 전설이 되었다.

晋阳湖鲤鱼化龙

晋阳湖是太原最大的天然湖泊，湖水澄澈、烟波浩渺，自古流传着鲤鱼励志化龙、守护湖水的动人民间传说。相传远古时期，晋阳湖水域辽阔，湖水滋养周边万亩良田，庇护沿岸村落百姓安居乐业，湖水灵气充沛，孕育了无数水族生灵。

湖中有一条普通的小鲤鱼，常年栖息湖中，生性坚韧善良。它目睹沿岸百姓春耕秋收，依湖而生，也见过洪涝、干旱给百姓带来的苦难，心中暗自许愿，想要守护这片湖水，庇护一方百姓。此后小鲤鱼日夜苦修，不惧风浪，在湍急湖水之中锤炼自身，历经数十年从未懈怠。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彼时太原连年大旱，烈日灼灼，草木枯萎，晋阳湖水日渐干涸，沿岸田地干裂，百姓颗粒无收，流离失所。看着受苦受难的百姓，修行多年的小鲤鱼于心不忍，耗尽毕生修为，引天地水汽，聚四方雨露。刹那间乌云汇聚、甘霖普降，干涸的湖水慢慢充盈，枯萎的草木重获生机。

天降甘霖之后，湖水充沛、万物复苏，而这条善良的鲤鱼历经磨难，功德圆满，一跃而起，化龙升空，守护晋阳湖岁岁安稳。此后千年，晋阳湖极少遭遇大旱洪涝，始终水波盈盈、滋养万物。时至今日，鲤鱼化龙的故事依旧在太原民间代代相传，成为坚韧向善、无私奉献的城市传说。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3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네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十四。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9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